

2010 김윤섭의 전시 들여다보기

감각을 확장해 가는 공감각적 드로잉

-Input 과 Output 사이에서-

1.차이의 확장 - 일상과 이상의 경계에 서다.

김윤섭의 개인전 오프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로 향했다. 두 명의 작자와 한명의 큐레이터가 동행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올려 두 시간 가량 소요되는 거리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입담이 시원스런 작자가 동행하고 있기도 했지만, 이번 전시에 대한 김윤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이들이 함께 한 터라 이런 저런 애정 어린 잡설 풀어 놓는 동안 당도했다. 전시 장소에 도착하니, 출발지인 대구에서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곳으로 거슬러 온지라, 추위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하필이면 오픈 날이 올겨울 들어 최고로 추운 날 이라고 하니, 2 시간 정도 달려 온 곳의 온도 차이는 너무도 확연했다. 이 체감되는 온도만큼의 서로 다른 지역적 감성의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 스친다.

정치권 문화권 사회전반적인 소식을 거의 동시에 접하는 초지구적 소통체계 속에서 동일한 것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차이'의 발생 때문일 것이다. '차이'의 힘은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소통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풍부한 삶을 만들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장소와 장소, 대상과 나, 신체와 정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만큼의 서로 다른 견해, 이 모든 경계너머 감각을 확장시키는 것이야 말로 예술적 상상력의 산물일 것이다.

김윤섭의 예술적 상상력이 만든 그림은 현실과 상상 사이를 연결하는 확장된 감각의 층들이 병치 혹은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작가적 감수성은 손으로 보는 공간적 설치(검은 오브제 드로잉)와 눈으로 만지는 공간적 회화(검은 평면드로잉)를 그리는 것에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컴퓨터를 활용한 무한 변형과 확장된 드로잉을 통해 상상과 현실이 만나는 공간 속에서 참신한 형상을 포착해 가며 빛과 그림자, 음과 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등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를 전치 혹은 역설을 통해 공감각적 확장을 보여준다. 그 확장은 일종의 상호 모순과 부조리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고 또 길들이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자, 독백과도 같은 읊조림에서 출발한다.

방황과 연민의 바다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상이 만나는 신세계를 찾아 떠나는 이 젊은 방랑자의 읊조림, 영(靈)과 육(肉)의 경계를 걸으며 이상과 현실이라는 시공간을 사진과 설치 그리고 글과 그림으로 읊조리며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자신이 쓴 <NIHILISM>에서 읊조리듯, "충동을 집어 삼킨 초인이 거니는 설원,.. 그가, 그녀가 서 있는 설원, 백색의 설원 위에 발자욱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어가며 화려하지도 싱겁지도 않은 풍경"을 만들기 위한 것일까.

또는 <예술 예술 예술>에서의 읊조림처럼, 엄마의 바람으로 함께 간 사업설명회에서 돌아와 몇 달간 요금이 지불되지 않아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던 통로가 끊어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라보는 설렁한 작업실, 어머니께서 쥐어 준 5 만원, 종일 시달렸던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작가는 다시 친구를 찾아가다. 그리고 어머니의 씬지 돈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술값으로 쓰였다.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예술 예술 예술'이 교차한다. 작가는 쥐색하늘을 이고 쌀쌀한 공기를 가르며 걷는 길에서 일상의 풍경을 본다. 그 풍경은 킬 힐을 싣고 뒤뚱이며 걷는 여자, 축구를 하는 고등학교 남학생들 그리고 쇼 윈도우 너머 던킨 도넛에서

킬 힐을 신은 여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풍경이다. 묵묵히 바라보는 현실의 쓸쓸한 풍경 속에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에게 이 풍경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이지만, 멀리 어딘가에 있는 다른 세계이거나 진공 포장된 건조한 스크린에 갇힌 세계가 된다. 이 세계는 사업설명에 어머니와 함께한 몸과 설렁한 작업실에 남겨진 마음이 놓인 경계만큼이나 낯선 풍경이지만, 작가는 이 낯선 경계에서 자신을 만난다. 그리고 김윤섭은 그것을 글과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일상과 이상의 차이를 확장해 간다.

2.시.공간의 확장 - 회화와 오브제의 경계를 보다.

김윤섭의 이번 개인전은 그간의 작업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한 전시였기도 했지만, 도지사 관사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전시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전시가 되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컸다. 차에서 내려 차가운 공기를 안고 한적한 언덕길을 따라 산책하듯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하고 나니 관사로 사용되던 집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층 주택 안으로 들어서는 기분이 여느 전시장을 들어서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전시를 보기위해 집으로 들어서는 묘한 기분이 사라지기도 전에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기분을 알기라도 하듯 벽에 걸린 그림들이 환한 얼굴로 반긴다. '창작의 귀환'展에서 보았던 익숙한 몇몇 작품, <나는 주로 대낮에 야동을 본다.> 연작 중에 몇 점에 눈에 안긴다.

페인팅 100 호 연작과 신작들이 어울려 적지 않은 거실 벽면을 채우고, 거실 가운데는 꽃으로 채색된 마네킹의 상체만이 마치 조각처럼 좌대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마네킹의 하체부분과 장난감이 결합된 오브제와 페인팅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상징하는 오브제인 마네킹은 벽면 모서리에 비스듬하게 걸린 페인팅을 향해 폭발할 듯 서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담홍색문양의 배경에 노랑 글씨인 <단순함이 화려한 총포라면 그것은 가장 찬란하게 발사되겠지>라는 율조림을 검은색 액자 속에 가두어 놓았다. 오브제와 페인팅 그리고 텍스트가 하나의 설치로 삼각구도를 취하는 이러한 시도는 만져지고, 보여 지고, 읽혀지는 감각의 차이를 공간속에서 확장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이다.

주방에는 청소도구인 밀대 네 개가 석고를 뒤집어쓰고 마치 밀담이라도 나누듯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설치는 친구들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한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 <결국은 중력이 승리하게 되었어!>에서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석고를 뒤집어쓴 청소도구 밑에는 '결국은 중력이 승리하게 되었어!' 라는 문장이 반사경위에 하얀 글씨로 확인처럼 박혀있다. 반사경에 비친 오브제와 반사경에 새겨진 텍스트와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은 청소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석고를 뒤집어쓰고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반사경 속에서 텍스트와 오브제가 동일한 색과 다른 의미라는 상호 모순 속에서 결합되어 공감각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시각적 표상이 된다. 이처럼, 거실에 전시된 작품들은 텍스트가 페인팅으로 그리고 페인팅은 다시 오브제로 상호 교환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이, 그 틈에서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오브제와 회화의 경계를 통한 시.공간의 확장일 것이다.

또한, 거실과 마주한 작은 방에 전시된 작품은 <조작된 추억>연작들로 오래된 사진을 구해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을 개입시켜 가족 혹은 학창 시절의 사진을 새롭게 조합해 내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시도는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을 '틀린 이야기'로 변형시켜 놓았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순보다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시지각 방식의 한계와 환영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환영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어쩌면 미술이 가진 전통적인 기법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시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작가는 오래전에 인화된 낡은 사진의 이미지를 스캔해서 컴퓨터 합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원본이 사라지고 복제된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를 쓴다. 이처럼, 원본과 복제를 통한 변형 그리고 그것을 통해 텍스트가 탄생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원본 이미지와 변형된 이미지,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의 관계가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통일된 감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그 어떤 역설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3. 감각의 확장 - 안과 밖의 경계를 건다.

작은 방에 전시된 사진과 텍스트의 관계가 갖는 원본성과 복제를 통한 변형, 그를 통해 다시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갖는 <조작된 추억>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작은방을 나왔다.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 액자에 <같이 뛰는 사이>라는 텍스트가 있다. 2 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 벽면에 걸린 페인팅은 젊은 남녀가 뜨겁게 키스하는 장면이 무채색의 페인팅과 녹색으로 그려진 두 점이 나란히 걸려있고, 2 층 입구에는 <윤섭의 탄생>이라는 100 호 크기의 페인팅이 걸려있다. 2 층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시도하는 설치와 페인팅 그리고 컴퓨터로 드로잉한 이미지 프린트가 전시된 곳이다.

2 층 거실에 가변 설치물인 <무제>는 수족관, 변기, 의자, 테이블 등등의 물체가 검은색으로 페인팅 되어 서로 무관한 일상들이 결합되어 있는 풍경이다. 생김새와 용도 그리고 재질이 다른 기성품은 검은 색 페인팅이 칠해지면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색을 통해 결합되고 있다. 더 이상 서로의 용도와 무관하게 낯선 것과의 배치 혹은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 즉 어떤 경계 속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속감 내지 집단 의식 등등이 오버랩 된다.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사람은 무수히 달라진다. 환경은 그만큼 지배적이다. 그래서 그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무제>인 설치물은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入(Input)하는 것과 出(Output)하는 것에 대한 사물을 통한 안과 밖에 대한 전치일 것이다. 어디가 안이고 밖이든지 간에 그것은 어디에서 보는가에 따라 안이 밖이 되기도 하고, 밖이 안이 되기도 하지만, 김윤섭의 설치인 <무제>는 서로 다른 형태가 갖는 동일한 색, 다른 모양이 갖는 차이에 대한 경계를 확장해가는 것에 있음을 본다. 그것은 거실 벽면에 붙여 놓은 백여 점의 컴퓨터 드로잉인 <무제>연작을 통해 안과 밖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 감각이 확장해 나가는 다른 방식을 볼 수 있다.

“그렇듯하다고 전부 예술은 아니다. 생각이 복잡하다고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등대지기는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다. 사자탈을 쓰고 춤춘다고 전부 사자춤을 추는 것은 아니다. 일기가 늘 슬직한 것은 아니다. 엑스레이에 모든 병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질량이 큰 것이 질량이 작은 것 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고집쟁이가 모두 고집이 센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악어와 악어새가 별로 안 친할 수도 있다. 책상위에 필요한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 더러워도 그림일 수 있다. 도로가 직선인 것만은 아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치킨 뼈를 모아 붙인다고 치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충 칠한다고 추상화는 아니다. 빵 굽는 냄새가 좋다고 빵이 맛있는 것은 아니다.”(김윤섭의 <무제>작에 대한 텍스트 중 일부 발췌)

이 텍스트가 갖는 의미는 글이 그림으로, 그림이 다시 오브제로, 오브제는 다시 비디오 퍼포먼스로, 비디오 퍼포먼스는 다시 글이 되는 순환을 통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다시 안으로 이행하는 상호 관계의 경계를 확장해 가는 긍정을 통한 부정과 부정을 통한 긍정이 상호 소통되는 감각의 확장이 아닐까.

2 층의 다른 방에 전시된 작품인 <죽을까(짜파게티 끓이며...)>는 나무의자 위에 서로 다른 재료와 모양으로 흰색 석고에 덮여 영켜있고, 그 위는 삼각형의 구조가 모자처럼 씌워진 오브제 설치물이 있다. 벽면에는 회색과 하늘색 페인팅이 벽에 걸려 오브제와 설치 그리고 페인팅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하나의 공간 속에 놓여있다. 거실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큰 방에는 <바퀴벌레에게 오줌을 뉘본 사람은 알꺼야>라는 제목으로 버려진 나무 박스와 스티로폼(styrofoam)을 마치 결박하듯, 끈으로 감아서 형태를 고정해 놓고 고무호스를 달아 놓았다. 거실을 마주한 두 방 사이에 있는 다른 방에는 <이성-이성, 이성+이성>의 중력을 이탈한 설치물이 있고, 벽에는 <신구조주의>라는 제목의 100 호 크기의 페인팅 한 점이 걸려있다. 이런 일련의 오브제 설치와 페인팅의 관계는 서로 무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고 있다.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는 텍스트가 된다. 그리고 그 텍스트는 오브제를 통해 설치와 페인팅의 관계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공간의 확장'을 통해 나와 너, 안과 밖, 입구와 출구, 신체와 정신의 경계너머 그 어떤 '감각의 확장'을 경험하는 장이된다. 밖의 공기만큼은 아니지만, 차가운 실내 공기가 몸속까지 스며들 때 즈음, 2 층에 전시된 작품들을 가깝게 혹은 멀리서 방향을 바꿔가며 바라보다, 오프닝 시간이 아직 한참 남은 시간에도 몇몇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을 뚫고 1 층으로 내려가면서 문득,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 이 젊은 작가가 이번 전시를 통해 미로 속에서 끊임없이 출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만져지고, 보여 지고, 읽혀지는 출구를 찾아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 속에서 예술을 또 예술 속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본다.

출구가 없는 곳은 감옥이다. 어쩌면 창작을 하는 사람이 가진 예술적 상상력이란, 신체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신체 안에서 발견하는 출구를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는 시지각적 실천이 아닐까. 아마도 그러한 예술가의 실천에는 어떤 벽일 지라도 세상으로 난 창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작가의 쓸쓸한 창작의 길을 따라가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깔렸다. 추위에도 동료작가와 선후배 그리고 지인들이 오프닝 축하를 위해 하나둘 전시장을 채운다. 시원한 입담으로 청주행에 즐거움을 주었던 작가는 그 사이 밖에 나가 작은 전기난로 하나를 사왔다.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글/김옥렬(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펠대표)

무제, mixed media, installation view,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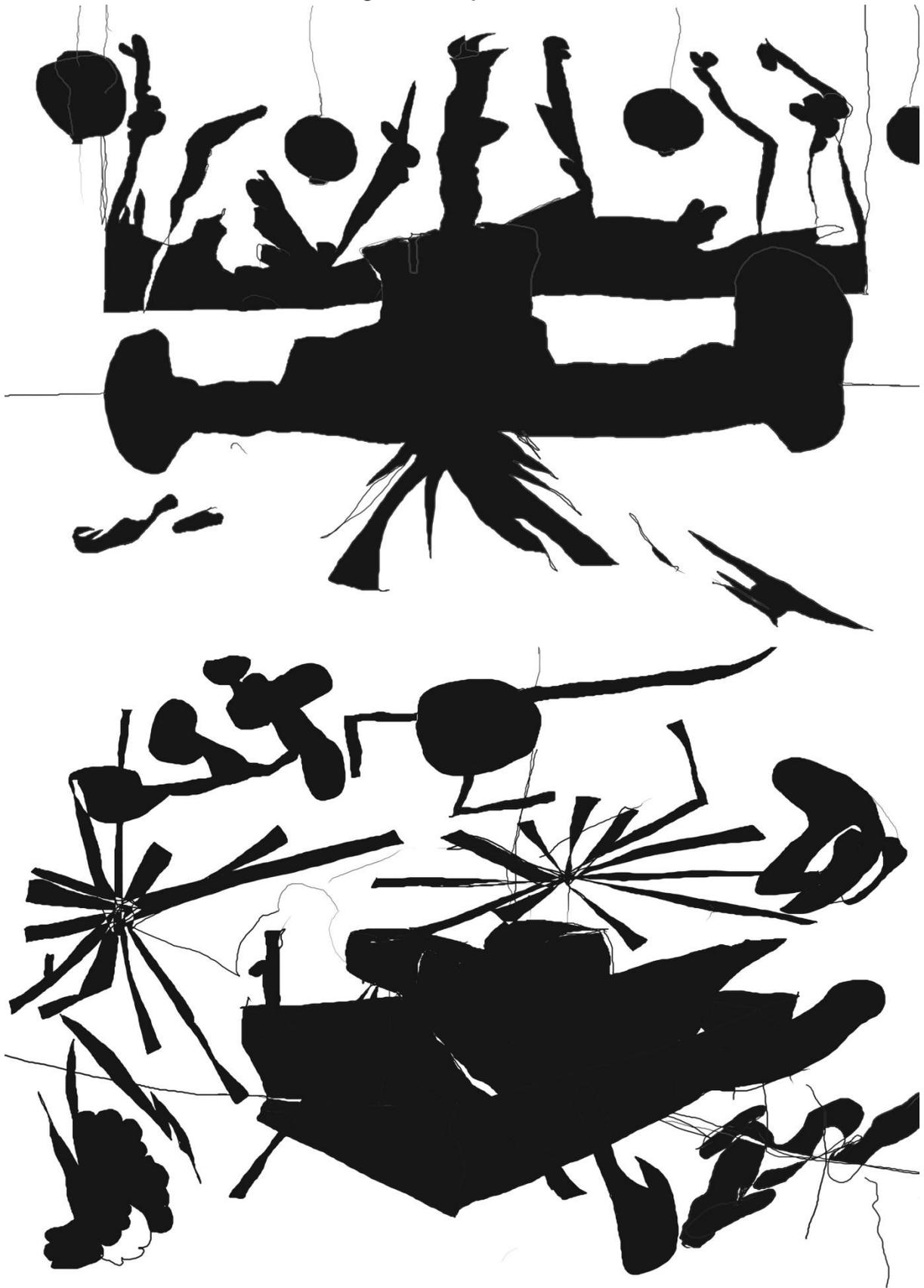
자동기술적으로 작업한 200여장의 흑백 드로잉에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부정문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제목으로 붙였다. 그 문장들을 이어 붙여 무의미한 퍼포먼스로 진행된 영상물을 만들었고 주위의 의미없는 오브제들을 검게 칠해 구성하였다.



무제 _ mixed media _ 가변설치 _ 2010

자동 기술적으로 작업한 200여장의 흑백 드로잉에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부정문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제목으로 붙였다. 그 문장들을 이어 붙여 무의미한 퍼포먼스를 진행해 영상작업으로 만들었고 주위에 아무의미도 없어 보이는 오브제들을 검게 칠해 구성하였다.

Untitled drawing series, C-print, 29.7x30cm,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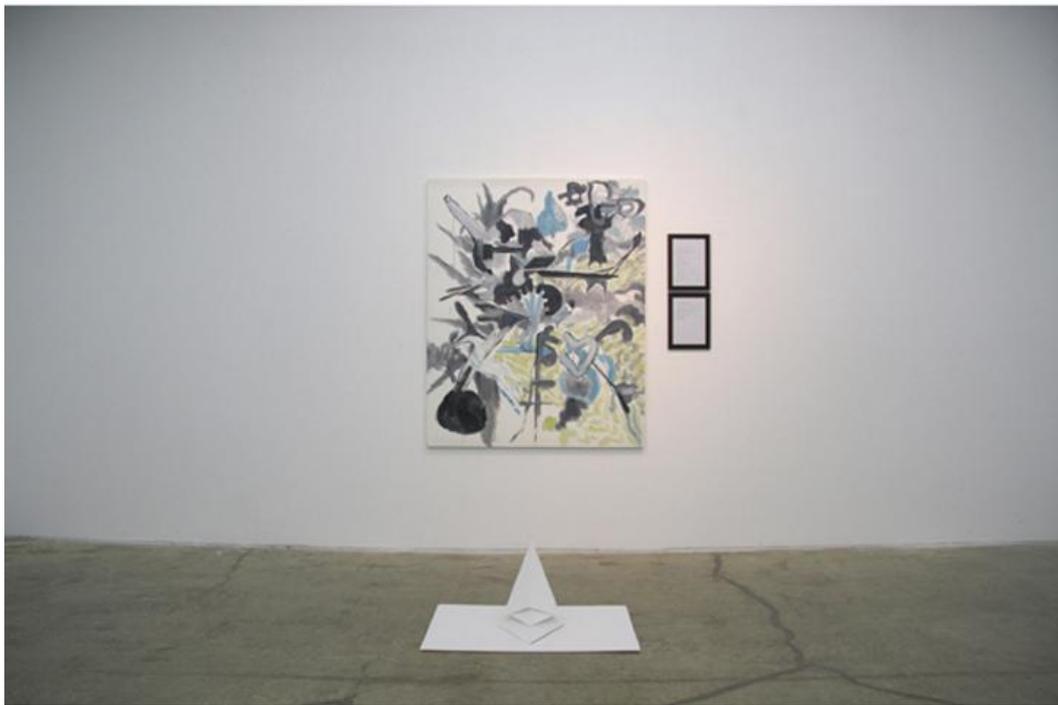


Untitled, text print, A3, 2010

새가 꼭 날면서 똥을 싸는 것은 아니다. 캠프파이어에 꼭 불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몸을 움츠린다고 구석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파도 앞에 항상 백사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미술이 꼭 난해한 것은 아니다. 골목에서는 바람이 직선으로 불 때도 있다. 그가 공통 같다고 꼭 화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벽에 얼룩이 진다고 디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장에는 대부분 기계가 있다. 모든 어려운 예술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니다. 핸들을 자신이 돌린다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여자는 간밤에 스타킹을 벗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식물이 늘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림은 도저히 모를 수도 있다. 소통이란 항상 소통하고 있던 오해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말을 약간 부정한다고 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작은 것이 항상 섬세한 것은 아니다. 낫 놓고 기억 자를 말한다면 바보일 뿐이다. 모든 제단이 성스럽지는 않다. 어떤 설치예술은 정말 예술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전부 심오한 것은 아니다. 꿈에서 하늘을 난다고 프로펠러를 만드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토끼 배를 찢다고 간이 전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어도 그렇게 안보일 수 있다. 냄새에 색이 있다면 세계는 정말 화려할 수도 있다. 옆에 있다고 꼭 그것에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이를 자를 때 꼭 칼이 편한 것은 아니다. 커다란 문자는 커다란 생각을 낳는 것은 아니다. 멜론에 수도꼭지를 단다고 멜론 주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왕개미가 죽었는데 슬퍼할 수도 기뻐할 수도 있다. 공터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을 때도 많다. 이런 것은 나도 그리겠다. 라는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도 있다. 예술적으로 결합하면 예술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거미가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보통 관심이 없다. 무언가 놓여져 있다고 그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듯하다고 전부 예술은 아니다. 패밀리 마트는 밤에 항상 밝을 수도 밝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복잡하다고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등대지기는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다. 벌레가 브로콜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필요는 없다. 도깨비가 항상 강한 것은 아니다. 그 남자는 머리가 복잡해서 기어서 갔다. 비수는 항상 등에서 찌르는 것은 아니다. 사자탈을 쓰고 춤춘다고 전부 사자 춤을 추는 것은 아니다. 현대미술은 오해를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다. 칼 싸움을 한다고 쳇 쳇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일기가 늘 솔직한 것은 아니다. 엑스레이에 모든 병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질량이 큰 것이 질량이 작은 것 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굴러다니면 그림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퍼즐은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된다. 사람은 한 곳에 뿌리를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이다. 오래된 창문에만 나뭇잎이 붙어있는 것은 아니다. 빗자루는 쓸기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줄무늬가 있는 동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놓여지는 것일 수도 있다. 야구가 맞아야만 정답은 아니다. 뿌리가 깊어도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허파에 바람이 차도 진지할 수 있다. 일이란 것은 심플하게만 생각해서 될 건 아니다. 고집쟁이가 모두 고집이 센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깨져도 냄새가 날 수 있다. 악어와 악어 새가 별로 안 친할 수도 있다. 책상 위에 필요한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 더러워도 그림일 수 있다. 도로가 직선인 것만은 아니다. 서빙을 잘한다고 서빙만 하라는 법은 없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아파트단지엔 공원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치킨 뼈를 모아 붙인다고 치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충 칠한다고 추상화는 아니다.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큰 것은 아니다. 보름달 초승달 무슨 달 있다고 달이 여럿인 것은 아니다. 자석이 꼭 다른 극만을 찾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무조건 낮춘다고 겸손한 것은 아니다. 식물이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빌딩이 지어진다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빵 굽는 냄새가 좋다고 빵이 맛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약필이 천재인 것은 아니다. 말에 안장을 엮어 놓았다고 전부 탈수는 없다. 상승하는 것은 하강할 때도 있다. 다리가 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굽직하게 솟아있는 것이 모두 남근으로 상징되는 것은 아니다. 태풍의 눈에서 초를 켜다고 안 꺼지는 것은 아니다. 미친 짓 한다고 전부 퍼포먼스는 아니다. 흙으로 쌓아 올린 탑이 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뺨지가 있다고 전부 훌륭한 것은 아니다. 철수세미에 봉을 단다고 용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질 수도 안 빠질 수도 있다. 화단 옆에 개가 있다. 원래 막힌 것과 조금 막힌 것은 같이 있을 수도 있다. 풀잎이 제멋대로만 자라는 것은 아니다.

무제(피노키오), oil on canvas, text print, poam board, 162 130cm, A4, 120x80x23, 2010

유화로 추상화를 그리고 그것을 보며 이미지에 근접한 글을 썼다. 글의 이미지를 보고 작은 입체물을 만들었다. 작품이 매체를 변화해가며 감각을 확장하는 것을 실험하였다.



Untitled _ oil on canvas _ text print _ poam board _ 162-130cm _ A4 x 2 _ 120 x 80 x 23 _ 2010

유화로 추상화를 그리고 그것을 보며 이미지에 근접한 글을 썼다. 그 글의 이미지를 보고 작은 입체물을 만들었다.
작품이 매체를 변화해가며 감각을 확장해가는 것을 실험하였다.

Untitled(Pinocchio), text print, A4x2, 2010

피노키오

추워서 죽었다. 그래 피노키오는 추워서 죽었다.

그것도 사막에서

누가 알겠는가 피노키오란 인물이 실제했으며 그는 콜로디의 노예였단 것을

오 가엾은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한 인간을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인형처럼 만들었다.

고약한 취미! 오- 냄새나는 고약한 취미!! 오- 더럽고 가증스런 인간!!! 변태같은 사람이여!!

인형이 되어버린 무지한 피노키오

의지가 거세되어 버린 인간

욕망의 화신이 자신의 욕망을 농장안에서 침흘리며 채우는 동안 젊고 아름다운, 빛나는 구릿빛 피부는
부패하여 갔다.

고약한 인간!!

사막의 황량함이라도 자유를 줄 수 있다면 택했을 것이다.

아니 그것도 영감의 계산에 있었다.

영감은 한때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을 것이다.

무지한 피노키오에게 자신을 찾아다니다가 고래에 먹혔다는 거짓말을 듣게 하고는 그를 기다렸을 것이다.

남자의 욕망이란 이다지도 더럽다.

초조한 마음으로 피노키오가 돌아오길 가축이 우는 농장안에서 촛불을 보며 기다렸을 것이다.

촛불을 보며 기도했을 것이다.

'너없인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오- 가엾은 피노키오! 너와의 추억은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할 우리들 만의
비밀스런 이야기 무지한 너라도 그것을 떠벌리진 않겠지'

피노키오는 길들여졌다.

마음 깊숙이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반문할 새도 없이 어려서부터 길들여졌다.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고 빵집 아주머니나 정육점 아저씨도 이렇게 생활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니 생각조차 없었다.

원래.

원래에 대항할 생각따윈 존재치 않는다.

그가 가출을 하고 처음 배운 윤리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해도 된다는 것

카드를 하고 돈을 잃으면 빠른 발로 달리면 된다는 것

칼을 들고 돈을 갈취할땐 복면을 써야 한다는 것 정도였다.

피노키오가 영감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였을 것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지만 심정이란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무지 자신의 욕망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노예, 세계의 노예

피노키오는 진정한 자연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는 세계에 태어나 세계속에 살다 죽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천한 자신(정확히 말하자면 미천한지도 모르는 던져진 존재)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없었다.

순백의 백지처럼 살아가는 인간. 그것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영감이 죽었다.

피노키오는 슬펐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영감조차도 세계의 하나로서 사라진 것일 뿐

그는 사막으로 향했다. 걷다가 보니 사막이었다.

피노키오는 죽었다.

밤의 사막에서 피노키오는 죽었다.

전갈이 그의 시체위에 떠돌았다.

죽을까? , mixed media, oil on canvas, text print, installation view, 2010

친구의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짜파게티를 끓이며 친구가 한 말이 인상깊어 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죽을까(짜파게티 끓이며,...) _ mixed media _ oil on canvas _ 가변설치 _ 2010

친구의 작업실에 놀러갔다가 짜파게티를 끓이며 한 친구의 말이 인상깊어 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영혼이 자유로운 개 삼순이 대기만성, mixed media, installation view, 2010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의 오픈스튜디오에 초청되어 제작한 작품으로 내가 입주에 있을 당시 그곳에서 키우던 삼살개를 추모하며 만들었다.



영혼이 자유로운 개 삼순이 대기만성 _ 장지에 먹 _ 아트팩토리의 오브제 _ 걸레술 _ 2M-1,3M-1,5M _ 100F _ 2010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의 오픈스튜디오에 초청되어 제작한 작품으로 내가 입주해 있을 당시 그곳에서 키우던 삼살개를 추모하며 만들었다.

The Dog Samsun with the free spirit, text print, A4, 2010

영혼이 자유로운 개 삼순이

삼순이는 늘 나의 쇼파에 앉아있었다.

쇼파는 부산대 미술과에서 버려진 것으로 나는 이곳에 처음 입주할 당시 쇼파가 필요한 참에 그것을 실고 왔다.

서서 그림을 그리다가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가 나는 쇼파에 누워야 했다.

허리가 아팠기 때문이다.

뒤돌아 쇼파를 보면 삼순이가 늘 쇼파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쳐다보면 삼순이는 그제서야 슬그머니 일어나 나를 보고 혀를 내밀고 있었다.(삽살개는 혀를 늘 내밀고 있다.)

내가 달려가면 불이나게 도망갔다.

삼순이는 천덕꾸러기였다.

같이 있던 동생 풍이와는 다르게 영리했고 독립성이 강했다.

어쨌든 둘 다 처음 시작된 아트팩토리에겐 천덕꾸러기 삽살개들이었다.

여기저기 똥을 싸놓고 벽이 있기전의 1000 평 가까이 되는 작업실을 자유롭게 뛰어 다녔다.

그런 삼순이와 풍이를 나는 돌봐야 했다.

그 아이들의 주인은 이도훈이라는 작가인데 행색이 궁색하나 요리만은 품위있게 해 먹었고 예의도 바른 사나이였다.

나는 그에게 묘한 매력을 느꼈다. 향간의 소문에는 부자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들렸다.

어쨌든 그가 2008 년 추운 겨울 (당시에는 작가 기숙사가 지금처럼 멋있지 않고 다만 녹색 바닥위에 이층침대가 놓여져 있을 뿐이었다.) 그들을 나에게 맞기고 서울로 일출하러 갔다.

워낙에 추웠던 지라 입주한 작가들은 하나 하나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갈 곳 없는 내가 겨울 내에 삼순이와 풍이를 돌보게 되었다.

'추운 겨울에 드넓은 아트팩토리 개들 사람하나

뒷마당에 나가 담배피며 하늘 올려보니 롯데캐슬 두둥'

처량하기가 이룰데 없었다.

오직 그 겨울은 삼순이와 풍이의 온기로 버텼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작가 모두는 하나씩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삼순이가 차에 치어 죽었다.

삼순이를 물론대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은 분명 힘든시기지만 이곳이 잘되려고 삼순이가 큰 액땀을 하나 해주는구나.'

아트팩토리에 올때면 나는 그 겨울이 생각난다.

그리고 삼순이가 생각난다.

* 삼순이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작품은 아트팩토리에 있는 물건들과 근처 철물점의 재료(걸래술)로 만들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꼬추도 힘을 낸다, mixed media, installayion view, 2011
추운겨울 나의 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하며 제작한 작품



'날씨가 추워질수록 꼬추도 힘을 낸다' _ 폼보드, 소세지, 드로잉(21-29.7cm), 헤어핀 그네 적화, Untitle (90 x 60cm) _ 가변설치 _ 2011

추운 겨울 나의 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하며 제작한 작품

The colder is weather, the harder is the penis, text print, A4, 2010

날씨가 추워질수록 꼬추도 힘을 낸다.

꼬추를 잘라버려야 해

바람이 살결을 베는 듯 해

바람의 귀신은 두팔이 날카로운 낫으로 되어있다지

그걸로 꼬추를 베어야 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홀로 존재를 견뎌내기에 세계는 너무 차가운거야

타인은 자신외의 타인을 자신을 인식하는 정도의 역할로 밖에는 쓰고있질 않아

그래서 꼬추만 뜨거워 지는거야

그래서 바람이 칼처럼 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꼬추는 점점 더 뜨거울 뿐이야

바람이 점점 세질수록 꼬추는 좀 더 힘을 내

존재의 불안이 꼬추를 강하게 만들어

인간은 존재가 위태로워 질때 번식을 한다더군 다른 동물들과는 반대로

외로움과 불안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불안하지 않은 세계가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들었지

하늘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땅속으로 파고들거나

끊임 없이 삼질하는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쇠주먹을 휘둘러 갈대숲과 바위를 치워가며 나가야 하는 존재인거야

그리고 밤에는 꼬추가 뜨거워지지

이성과 본성 이것만 조절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야

동물이 동물인것을 누가 어떻게 부정하겠어 오히려 사람들은 동물이 동물 답지 않을때 뒤에서 의심을 품곤 하지

고작 그런 존재인거야 사람은

다만 꼬추가 뜨거워지는 동물이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것은 세계가 차가우면 차가울 수록 더욱 뜨거워지지

누군가 말했지?

꼬추는 불안과 외로움을 먹고 그것을 다른 차원의 세계로 열어주는 열쇠란거야

굉장하지?

무제(염소), 53.5x39cm, pencil on pap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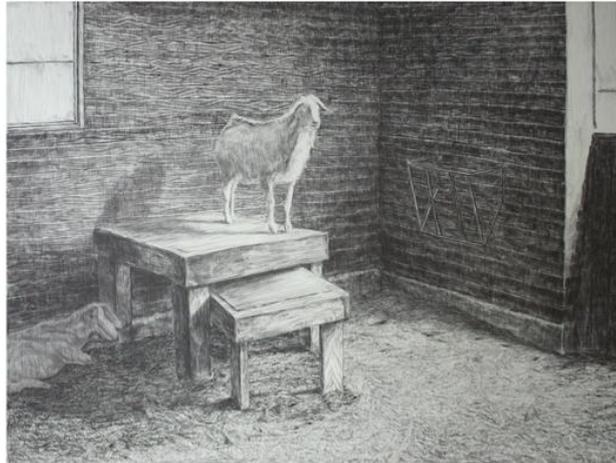
나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의식을 염소에 빗대어 그린 염소그림 시리즈



무제 53.5-39cm 종이에 펜 2011

나와 사회의 관계속에서 내가 느끼는 융통한 의식을 염소에 빗대어 펜으로 작업한 염소그림

무제(염소), 63.9x93.9cm, pen on paper, 2011



무제 63.6-93.9cm 종이에 펜 2011

나와 사회의 관계속에서 내가 느끼는 공통한 의식을 염소에 빚대어 펜으로 작업한 염소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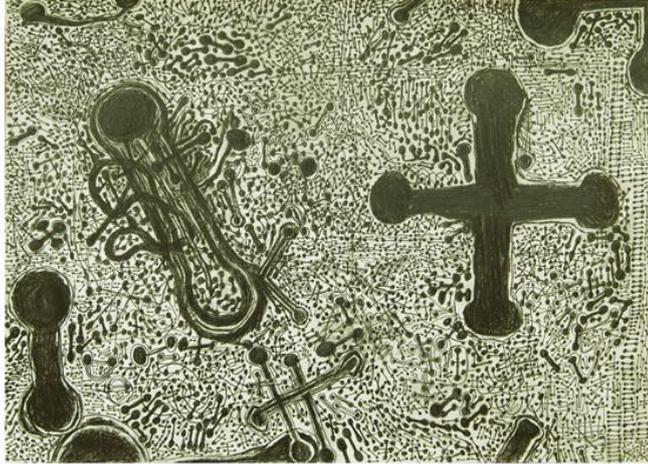
무제(염소), 53.5-39cm, pencil on paper, 2011



무제 53.5-39cm 종이에 연필 2011

나와 사회의 관계속에서 내가 느끼는 공통한 의식을 염소에 빚대어 연필로 작업한 염소그림

평등함의 테크놀로지, 53.5x39cm, pencil on paper, 2011



평등함의 테크놀로지 53.5-39cm 종이에 연필 2011

Technology of equality, Text Print, A4, 2011

평등함의 테크놀로지

면봉이 보인다 그건 참 멋진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으나 아름답다
그것은 보통 모여있다
나느 면봉의 균형 잡히고 정직하며 평등한 외모에 감탄하고 있었다
티비에선 스타크레프트 게임이 나오고 있었다
그곳에 나오는 세종족은 사실 공평치 못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면봉은 그렇게도 정직하며 뽐내지 않으며 공평한 아름다움까지 갖춘 물자체이다
누군가는 복제된 것들에 강한 부정의 표현을 한다
아름다운 것이 많이 복제 되어 세계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아닌가?

무제, installation view, 2011

2010년 행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부정문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이어붙여 무의미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작업 중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장면을 캡처해서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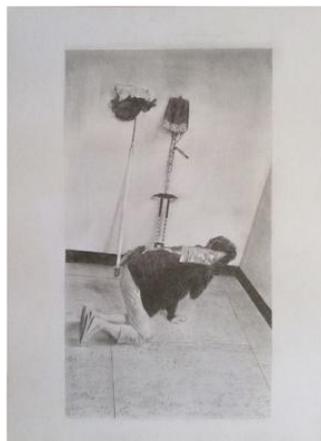
2010년 행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부정문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이어 붙여 무의미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영상작업 중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장면을 캡처해 그렸다.

무제, 53.5x39cm, pencil on paper, 2011



무제1 - 4 53.5-39cm 종이에 연필 2011

무제, 53.5x39cm, pencil on paper, 2011



무제, 53.5-39cm, pencil on paper, 2011



단순함이 화려한 총포라면 그것은 가장 찬란하게 발사되겠지, installation view, 2012

BSC관 베이징 송창에 있는 레지던스 스튜디오에 잠시 머물면서 행한 작업으로 2010년 만들어 놓은 시구를 번역하고 그곳의 오브제들로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



단순함이 화려한 총포라면 그것은 가장 찬란하게 발사되겠지 가변설치 2011

BSC관 베이징 송창에 있는 레지던스 스튜디오에 잠시 머물면서 행한 작업으로 2010년 만들어 놓은 시구를 번역하고 그곳의 오브제들과 함께 구성했다.

백발마녀, installation view, 2011

여자친구의 흰머리를 뽑다가 백발마녀가 떠올라 그것을 소재로 마녀라 불리는 여인들과 그 상대방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 작품



백발마녀 실 오리 복분자 종이에 연필 2011

여자친구의 흰머리를 뽑다가 백발마녀가 떠올라 그것을 소재로 마녀라 불리는 여인들과 그 상대방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 작품

